

# “No Limit...끝없이 도전하라” 노 준 사범 - 72년부터 호주서 태권도 보급에 앞장

2009년 07월 16일 (목) 16:30 뉴스캔

가족 모두 태권도 즐기는 태권패밀리



[서울=TK TIMES/뉴스캔] 2009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현장에서 호주 태권도팀(이하 호주팀)을 인솔하고 방한한 노 준 사범과 자리를 함께 했다. 호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30여 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노 준 사범의 막내 딸 노진이(18세, Christina No) 선수가 8강에 진출했다. 노 사범의 두 딸인 진이와 진아(21세, Bianca No)는 둘 다 호주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진아는 현재 팀 내에서 코치로 활동 중이다. 노 사범이 호주 땅을 밟은 것은 지난 1972년. 무술사범으로서 세계에 진출해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. 노 사범의 친형인 노계형

사범(호주태권도협회 초대 회장)은 이미 1963년에 호주로 건너가 호주에 처음으로 태권도를 보급한 인물이다.

노 사범이 호주에 갔을 당시만 해도 가라데가 기반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태권도를 알리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.



[좌측 노 준 사범과 73년도 국가대표를 지낸 이선엽(신영커뮤니케이션)대표와 함께]

노 사범은 “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방송이나 행사 등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는데 시범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시범이 가라데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허탈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”면서 “태권도는 발음하기조차 힘들어 태권도라는 이름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”고 회상 했다. 노 사범은 현재 멜버른을 중심으로 태권도장을 1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. 수련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‘정직 하고 바른 사람이 되라’는 것이다.

또한 ‘No Limit’를 관훈으로 정하고 끝없는 도전정신을 주지시키고 있다.  
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맥쿼리의 존 워커 회장(한국맥쿼리)  
회장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존 워커 회장이 태권도장을 지원하고  
있으며 지난해 세계태권도연맹과 맥쿼리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에도 노 사범이  
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.

“가족 모두가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의 소재도 풍부하고 함께 땀  
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서로에 대한 애정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다”며  
태권도 패밀리의 장점을 설명한 노 사범은 인터뷰 말미에 “호주 내에서 태권도를  
더 많이 보급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태권도 인재들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 
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다”는 바람을 피력 했다.

(기사제공=월드태권도신문 김영걸 기자)

[TK TIMES 양재곤 기자] ‘영상과 뉴스의 만남 [www.tktimes.com](http://www.tktimes.com)’

<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/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 및 책임은 TK TIMES에  
있음>

[뉴스캔] TK TIMES 양재곤 기자 [ceo@tktimes.com](mailto:ceo@tktimes.com)

제공 : 뉴스캔 | 뉴스캔 전체보기

뉴스인사이드담기  
블로그담기  
스크랩